

“3·1운동 100주년, 역사의식 교육 중요”

김승환 교육감, 확대간부회의서 역사교육 강조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김승환 교육감이 역사의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1919년부터 100년이 지났지만 일제 침략지배, 식민지배의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고, 일본은 지금도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다”면서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는 특별히 학교에서 3·1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1910년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집어삼킨 것을 전문가들조차 ‘합일합방’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일제가 조선을 삼킨 것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 ‘합병’으로 표현하면 되겠느냐”면서 “우리 입장에

서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병탄’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일제강점기 잔재 중에 언어에 남아있는 각종 잔재들을 청산하는 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학교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학교에서 진행되는 공사들이 전체를 조감해서 보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처리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1~2년을 공사 속에서 지낼 수 있다. 그러면 늘 공사에 시달리고 그 피해는 아이들에게 가게 된다”면서 “단위학교별로 2~3년의 공사일정을 정리하고, 그것을 시실과에서 총괄, 각 사업부서가 문제에 대응하는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장은성 기자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11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김승환 교육감이 역사의식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회적경제 이끌어 갈 인재 키운다

전주대, 도내 대학생·관련 종사자 대상 리더과정 수강생 모집

전주대학교(총장 이호인)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이하 ‘리더과정’)은 전북지역 대학생과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를 선도할 핵심 인재로 양성하는 과정이다.

전주대 리더과정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하여 총 613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전주대는 올해부터 신규 확산유형으로 리더과정에 참여한다. 1학기부터 이화여대와 함께 학부 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미래 사회적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로 성장시킨다.

전주대 리더과정은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1년 3학기제, 전체 9학점 이수과정으로 구성된다. 리더과정은 이론교육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인턴십 및 프로젝트 등의 실천형 현장교육도 이뤄진다.

1학기에는 사회적경제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사회적경제 이론과 실제’를 교육한다. 여름학기에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사회적경제 및 지역혁신 활동현장에서 ‘현장실습과 인턴십’을 진행하고, 2학기에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통한 소셜벤처 현장실습 등으로 지역 문제 해결력을 갖춘 사회적경제 활동가를 키워낸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고 분할될수록 지역에 산재된 문제 해결을 위한 인재 양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전주대가 가진 우수한 교육 인프라와 노하우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 리더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리더과정은 전북지역 대학생 및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으며, 강의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주대 자유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문의는 전주대 외협력홍보실(063-220-2124)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체육 경쟁력 강화 ‘총력’

전북체육회, 도민 자긍심 고취·우수선수 육성 등 노력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가 올해도 전북 체육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노력을 쏟았다고 밝혔다.

“체육을 통한 도민 행복증진과 자긍심 고취”를 슬로건으로, 전북 체육을 ‘건강하게!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끌어 가기로 했다.

이에 학교체육과 전문(엘리트)체육·생활체육 진흥을 비롯 도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포츠도민 기본권 확립과 스포츠 강도에서 스포츠 선진도로, 함께하는 동행체육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수립했다. 특히 전북체육회는 그간의 성과와 결과물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은 전북 체육을 구현하기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또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전북체육의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전북체육회와 전북생활체육회 통합된 지 올해로 4년째. 통합 전북체육회의 올해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을 총 2차례에 걸쳐 정리해보고자 한다.

전북체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된다. 이는 지난해 열린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성과(종합3위)를 이어가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전국종합체육대회 성적거점으로 도민 자긍심 고취 ▲전문체육 선수·지도자 중점 발굴 육성을 통한 저변확대 ▲학교체육 활성화·지역 특화종목 육성을으로 경기력 향상 기반 조성 등 크게 3가지이다.

올해 열리는 굵직한 전국대회를 보면 제100회 전국동계체육대회(2월), 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5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10월) 등이며 상위입상을 위한 노력이 펼쳐진다.

강화훈련 및 전라희의를 통해 전북 선수단의 전력을 강화시키고, 훈련장감과 우수선수 등을 확보하는 한편 불출전하는 종목은 최소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꿈나무 선수를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학교체육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정례가 촉망되는 우수선수를 집중관리하는 엘리트 육성사업도 진행한다.

각종 행·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이뤄진다.

먼저 전북체육회관에서 운영중인



지난해 열린 전국체전에서 전라북도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전북스포츠과학센터와 체력단련장의 운영을 내실화한다.

선수들의 전문체력 측정과 운동기술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과학적 지원 시스템이 가동된다. 아울러 선수트레이너 운영을 확대하고 도내 재할 전문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고 빠른 회복에도 앞장 설 계획이다.

각종 연수와 교육을 통해 선수와 지도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중앙종목단체와 연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심판강습회·전문스포츠지도사·생활스포츠지도사 등)도 참가하기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선수·지도자 육성 연계체제를 확립하기위해 실

업팀을 창단시키고 활성화시키려는 작업도 병행된다. 타 시도에 비해 실업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도내에는 37개(상무·국민체육진흥공단 제외)의 팀이 있다. 전북도청과 도내 14개 시·군에서 19개 종목 23개팀을 운영중이며 도체육회가 8개 종목 8개팀을 육성하고 있다.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팀은 5개 팀(삼양사·전북은행·하이트맥주·국토정보공사·전북개발공사)이다. 이에 도 체육회는 우수선수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업팀의 전력강화를 위해 더 많은 기업체와 행정기관에서 팀을 창단할 수 있도록 동분서주 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진로체험 통해 미래 설계 능력 함양 기대

도교육청, 진로탐험 지원 실시

전북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학생의 꿈을 찾는 꿈사다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단순한 진로체험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하는 ‘허클베리진로탐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클베리진로탐험은 중3과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전 학년에서 경험했던 다양한 진로체험을 구체화하여 자신의 적성과 소질,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설계할 목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계획·실천·평가하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학생들은 개인별 또는 8명 이내의 동아리별로 다양한 체험과 진로탐색 계획을 수립하되 주말이나 연휴, 방

학 기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학교는 학교 규모와 형편에 따라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도 가능하다.

중3은 300학급, 고1은 200학급을 선정한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급별 20명 내외, 총 10억원 규모의 진로탐험 활동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담임 교사의 신청예산을 학년부장이 취합하여 도교육청에 제출하면,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학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인솔자를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인솔 담당자를 확인하여 지정 운영해야 한다. /장은성 기자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신청하세요”

도교육청, 14일부터 신청 접수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참여 신청을 받는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맞춤형 교육 서비스로 혁신교육 공감대를 높이고자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진행한다. /장은성 기자

신청대상은 사립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자녀교육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기관이나 직장 및 단체, 군부대 등 직장에서 학부모교육을 희망하는 곳이면 어디나 가능하다.

‘찾아가는 학부모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팩스(063-220-9442) 또는 이메일(stellar07@jedu.kr)로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